

## 칸디思想의 研究 (三)

저자 미상

### 三 (續)

그러나 茲에 怒함이 不可타 함은 默從하라 하는 것은 아니오, 本來 怒한다는 것은 엇던 損傷을 敵에게 하려 하는 願望이니 그는 設使 自己의 손으로 加치 안는다고 하여도, 或은 他人의 行爲로나 神을 依賴하여 禍를 加하려 하는 思想을 抱懷할 것 같으면 吾人은 不殺生의 教義를 忤난 것이라 하여, 이 教를 學한 者는 殆히 目的地에 達하려 하는 終期에는 全世界가 吾人의 脚下에 屈伏함을 見할지오. 이를 欲치 안트라도 自然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所謂 敵에 對하여 愛를 除去키 어려운 印象을 엇으면 卽 不殺生의 教를 徹底히 하게 되면, 敵도 반다시 愛로써 對하게 될 것이라 하였슴으로 이 法則 下에서는 組織的 暗殺을 是認할 餘地가 업고 公然히라도 殺戮을 是認할 餘地가 업스며, 비록 國家를 爲하여서라도 或은 自己의 責任 下에 잇는 者를 保護키 爲하여서라도 絶對로 暴行을 是認할 餘地가 無하여, 瀆神者의 마음대로 自己를 一任함으로부터 自己의 責任 下에 잇는 者의 名譽를 擁護할 수가 잇다는 것을 不殺生의 教는 가라침으로 打擊을 加하는 것보다도 一層 더 物質的, 精神的, 勇氣를 要하나니, 이러한 意味로 戰爭을 正當하다고 함과 如한 愛國心의 概念은 存在할 수가 업는 것이라 하고 過般 歐洲戰爭에도 終始 好意를 갖지 아니 하였도다.

三은 獨身의 誓이니, 以上 二項의 誓를 固守하랴면 獨身生活을 營爲치 아니치 못할지라. 國民의 奉仕를 하려하는 者나 宗教的 生活을 하려하는 者는 結婚의 爲不爲를 不問하고 獨身生活을 營爲하라 하였나니, 然則 彼の 結婚觀은 엇더하뇨? 結婚이란 것은 男女를 合一하여 現世에나 來世에나 永劫不可離할 特殊한 意味의 友人이라 하고, 結婚이란 觀念에 性慾의 滿足이 반다시 包含되얏다고는 想覺치 안는다 하여, 性慾 卽 □物慾을 抑制하여 外面上 뿐 아니오 心中에서라도 이러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萬若 結婚을 하

면 妻를 劣情視치 말고 一生涯의 友人으로 그 關係를 完全 純潔케 하라 하여, 如斯히 獨身生活의 定義를 下하얏도다.

四는 滋味 節制의 誓이니, 獨身の 誓를 履行하라면 性慾을 抑制할 것이오, 性慾을 抑制하라면 滋味의 樂을 克服치 아니치 못할지니, 國家에 奉仕하려 하는 者는 社會에 □有한 茶店, 珈琲店, 料理店□을 업세라 하얏스며, 이러한 것은 오즉 吾人의 健康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食物에 混合하여 吾人의 身體를 興奮, 保溫, 刺戟케 할 紗름이니, 그러치 안코는 吾人은 奢侈, 昂奮 等の 陋習을 制壓할 수 업서서 濫用을 爲事하고 我等에게 附與한 神의 神聖한 委托도 이를 濫用하여 遊衣遊食하며, 오즉 共通한 情慾만 滿足케 하여 禽獸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地境으로 吾人을 墮落케 할지라. 그러함으로 日日의 食事を 規則 바루게 하고, 이를 純潔케 하여 性慾을 刺戟케 할 食物은 될 수 잇는 대로 이를 避하고, 又是 不必要한 食事は 이를 禁하라 하얏도다.